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493>

JCCT 2024-11-61

간호대학생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erfection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Self-leadership on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변은경*, 방미선**, 조경진***

Eun Kyung Byun*, Mi Seon Bang**, Gyeong Jin Jo***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B, Y시의 간호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행복은 평균 2.77 ± 0.67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는 전공만족도($F=7.48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행복은 완벽주의($r=.161, p=.013$), 대인관계 만족도($r=.573, p<.001$), 셀프리더십($r=.476,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만족도($\beta=.453, p<.001$), 셀프리더십($\beta=.268, p<.001$)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36.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완벽주의를 조절하고 대인관계 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감,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self-leadership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targeted 240 nursing students in B and Y citie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average happiness of the subjects was 2.77 ± 0.67 points, and the difference in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 in major satisfaction ($F=7.488,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appiness and perfectionism ($r=.161, p=.01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r=.573, p<.001$), and self-leadership ($r=.476,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beta=.453, p<.001$) and self-leadership ($\beta=.268, p<.001$)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6.2%.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perfection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order to enhance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Covert Narcissis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3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27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15, 2024 / Revised: Septem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msbang@eagle.kit.ac.kr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시대와 문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에 쉽지 않다. 학문영역 마다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삼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은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사건 또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일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 슬픔과 괴로움을 또는 고통을 느낀다. 인간은 환경 속에 존재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겪는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이 삶의 만족 혹은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2].

대학생은 대학생활 과정 동안 사회적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진로선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3].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며,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4]. 대학생 중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과중한 학과 공부와 과제 등으로 대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5]. 이러한 간호대학생이 행복감의 정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로 준비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행복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로 그 정도에 따라 삶의 성공적인 과정 및 척도가 될 수 있다[6].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순간적인 긍정적 감정을 평가하여 개인이 주변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서적 판단으로[7]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고[8] 자기 조절능력과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난다[9]. 행복감에는 환경적인 외적 요인과 개인 스스로 동기화되어 발견하고 증진시키는 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10]. 간호대학생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요인과 대인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간호대학생은 자아가 건

강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개인적 요인으로 먼저 완벽주의가 있다. 완벽주의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특성이다[13]. 처음에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특성만으로 생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적응적 특성과 부적응적 특성을 지닌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14]. 선행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성취추구, 높은 업무수행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정서 등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15-16]. 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외로움, 두려움, 자살사고,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7-18].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직업특성상 완벽주의적 성향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선후배, 동기, 교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병원 임상실습에서의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19]. 원만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 건전한 성격을 지닌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으나 불만족스런 대인관계는 인격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간호대학생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인 대인관계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고[21], 이는 간호사가 되어서도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다른 건강관리 구성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22]. 그러나 대인관계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인 대인관계 만족도의 수준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 대인관계 만족도의 평가는 대인관계능력 보다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3].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우울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24]와 대인관계능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25]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행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요인으로 개인적 자원인 셀프리더십이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자율성을 강조하여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26]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 더 높아지고[27], 셀프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할수록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역동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29]를 통해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의 정도를 확인하고,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4년 5월 8일에서 6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B, Y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간호대학생 1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제공된 개별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설문지 모집함에 넣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참여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5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4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부를 제외한 24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Hewitt 등[30]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PSPS)를 Ha[31]가 재구성하고 타당화한 PSPS-K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9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31]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5였고, 하위요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8,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82,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92,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82,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86으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를 측정을 위해 Schlein, Guerney[32]의 관계 변화 척도를 Moon[33]이 수정한 대인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Nam[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

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35]가 개발하고 Kim[3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3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4로 나타났다.

4) 행복

본 연구에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Argyle[37]이

개발한 옥스퍼드 행복척도를 Choi[3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행복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로 외적행복 10문항, 내적행복 6문항, 자기조절행복 5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38]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외적 행복 .92, 내적 행복 .92, 자기조절 행복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는 .97 이었고, 외적 행복 .95, 내적 행복 .93, 자기조절 행복 .92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입력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전체 240명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 209명(87.1%), '남학생' 31명(12.9%)이었다. 연령은 '21-22세'가 136명(56.7%)이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46명(19.2%), '26세 이상' 20명(8.3%), '23-25세' 38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55명(22.9%), '2학년' 58명(24.2%), '3학년' 60명(25.0%), '4학년' 67명(27.9%)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 175명(72.9%), '있음' 65명(27.1%)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144명(60.0%), '만족' 71명(29.6%), '불만족' 2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의 정도

대상자의 완벽주의 평균 4.58±0.87점, 대인관계 만족도 평균 3.66±0.60점, 셀프리더십 평균 3.56±0.59점, 행

복 평균 2.77±0.6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09	87.1
	Male	31	12.9
Age (year)	≤20	46	19.2
	21-22	136	56.7
	23-25	38	15.8
	≥26	20	8.3
Grade	1	55	22.9
	2	58	24.2
	3	60	25.0
	4	67	27.9
Religious	None	175	72.9
	Yes	65	27.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71	29.6
	Moderate	144	60.0
	Dissatisfied	25	10.4

표 2.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perfectionism,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leadership, happiness(N=240)

Variable	M±SD	Min	Max
Perfectionism	4.58±0.87	1.32	7.00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3.66±0.60	1.00	5.00
Self-leadership	3.56±0.59	1.00	5.00
Happiness	2.77±0.67	1.00	4.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F=7.48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증에서 전공만족도는 '높음'이 '보통', '낮음'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Happiness	
		M±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2.75±0.67	-1.490 (.138)
	Male	2.94±0.64	
Age (year)	≤20	2.89±0.68	1.162 (.325)
	21-22	2.78±0.66	
	23-25	2.62±0.61	
	≥26	2.74±0.81	

Grade	1	3.52±0.49	.451 (.717)
	2	3.50±0.57	
	3	3.59±0.48	
	4	3.49±0.43	
Religious	None	2.76±0.66	-.569 (.570)
	Yes	2.81±0.7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3.01±0.64	7.488 (.001) a>b, a>c
	Moderate ^b	2.70±0.65	
	Dissatisfied ^c	2.53±0.71	

표 4.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leadership, happiness(N=240)

Characteristics	Perfectionism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leadership	Happiness
	r(p)			
Perfectionism	1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312 (<.001)	1		
Self-leadership	.480 (<.001)	.575 (<.001)	1	
Happiness	.161 (.013)	.573 (<.001)	.476 (<.001)	1

표 5.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happiness(N=24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6	.254		.93.0	<.001
Perfectionism	.084	.045	.109	1.851	.065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502	.070	.453	7.167	<.001
Self-leadership	.305	.078	.268	3.921	<.001
Adjuste R ² =.362 F=46.225 p<.001					

것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은 완벽주의(r=.480, p<.001), 대인관계 만족도(r=.575, p<.001)와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완벽주의(r=.312, p<.001)와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완벽주의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Table 4).

5.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

4.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과 행복과의 관계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과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복은 완벽주의(r=.161, p=.013), 대인관계 만족도(r=.573, p<.001), 셀프리더십(r=.476, p<.001)과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자의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은

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감과 상관 관계를 나타낸 독립변수인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을 투입하여 입력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성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569-.76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302-1.756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6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행복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6.225,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362로 행복을 36.2%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만족도($\beta=.453, p<.001$), 셀프리더십($\beta=.268, p<.001$)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만족도인 것을 확인하였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행복은 4점 만점에 평균 2.77 ± 0.67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한 예비보육 교사의 3.94(5점 만점) 행복보다 낮게 나타났다[39]. 다른 도구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47점[40] 보다도 낮았다. 본 도구는 외적 행복, 내적 행복, 자기조절 행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행복 점수가 높은 내용과 행복 점수가 낮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조절 행복은 자신의 긍정적 사고를 통해 행복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을 통한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정도의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5][41]와 유사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가진 신념, 성향, 내적 차원에 따라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여 삶의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정서적 문제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요인이다[4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행복감도 높게 결과[43]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특성을 수용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43]. 따라서 간호대학

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에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복은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행복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5]와 유사하다. 또한 대인관계 만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24].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므로[21], 대인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대학생활의 부적응 및 우울이 나타날 수 있다. 행복감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이 자율성과 통제력, 삶의 목표를 실현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44]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만족도를 확인하고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과 실습 등에서 학생의 대인관계 정도를 확인하여 개별 면담 및 학생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행복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이 행복과 관련성을 나타낸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45]와 리더십이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9]와 유사하다.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업에 흥미를 더하고 성과를 나타내며,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결과[28]는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46]를 통해 셀프리더십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결과[40]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

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함으로써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중재를 개발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완벽주의는 행복과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나타낸 연구는 없어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골프참여자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47]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48]와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완벽주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완벽주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완벽주의의 세부 항목에 따른 행복의 차이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의 정도를 확인하고,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완벽주의, 대인관계 만족도,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완벽주의 성향의 조절과 대인관계 만족도 및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 C. Cho,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1, pp. 157-184, 2013.

[2] C. P. Neck, and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1, No. 4, pp. 270-295, 2006.

[3] S. J. Goings, and E. H. Lee, "Mediating effect of coping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1, No. 1, pp. 21-40, 2006.

[4] J. N. Kim, and H. W. Che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focus on Jeollabuk-do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Food Service Industry Journal*, Vol. 9, No. 3, pp. 81-92, 2013.

[5] S. N. Kim,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Society of Enneagram Spirituality*, Vol. 1, No. 1, pp. 46-37, 2012.

[6] M. Argyle, M. Martin, and J. Crossland, "Happiness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s", In: ForgasJP, Innes JM, editor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Netherlands: Elsevier, 1989.

[7] S. Lyubomirsky, and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46, pp. 137-155, 1999.

[8] K. H. Jo,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78-189,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2.178>

[9] W. C. Compton,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CA: Thomson Wads worth.

[10] R. M. Ryan, and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68-78,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11] A. Brajsa-Zganec, L. K. Lipovcan, D. Ivanovic, and Z. P. Larsen,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role of affect regulation, self-esteem, family cohesion and social support", *The Open Public Health Journal*, Vol. 10, pp. 69-79, 2017. DOI: <https://doi.org/10.2174/1874944501710010069>

[12] M. J. Jo,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182-190,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82>
- [13] G. L. Flett, and P. L. Hewitt,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5-1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14] D. M. Dunkley, K. R. Bankstein, J. Halsall, M. Williams, and G. Winkworth,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7, No. 4, pp. 437, 2000.
- [15] H. J. Kim, and C. N. S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1, No. 2, pp. 345-361, 2006.
- [16] M. Milyavskaya, B. Jarvey, R. Koestner T. Powers, J. Rosebaum, I. Ianakieva, and A. Prior, "Effect across the year : how perfectionism influences the patten of university students' affect across the calendar yea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33, No. 2, pp. 124-142, 2014.
- [17] E. Y. Song, and E. H. Ha, "The effect of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perfectionism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on social anxiety",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8, No. 1, pp. 41-56, 2008.
- [18] Y. S. So, and J. S.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3, pp. 661-682, 2009.
- [19] H. S. Park, Y. J. Bae, and S. Y. Jeo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 621-631, 2002.
- [20] H. I. Le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8, No. 2, pp. 109-118, 2010.
- [21] H. W. Kwak, and S. W.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focus on a four-years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239-249, 2017.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2.239>
- [22] Y. S. Lee, "Influence of empath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12, pp. 865-875, 2022. DOI: <http://doi.org/10.22251/jlcci.2022.22.12.865>
- [23] B. S. Hwang, and H. S. Jang,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MBTI personality patterns(focus on 3th military cadet)",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6, No. 3, pp. 11-26, 2016.
- [24] S. H. Kim, and J. M. Lim, "Effects of body imag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16, pp. 83-91, 2023. DOI: <http://doi.org/10.22251/jlcci.2023.23.16.83>
- [25] S. J. Kim, "Effects o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ion of nurse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5, No. 1, pp. 1-10, 2018.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8.25.1.1>
- [26] G. A. Seomu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1, No. 1, pp. 45-58, 2005.
- [27] S. Y. Joung, and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problem-solv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8, No. 1, pp. 41-56, 2008.
- [28] H. J. Won,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9, No. 1, pp. 123-131, 2015. DOI:<https://doi.org/10.12811/kshsm.2015.9.1.123>
- [29] H. S. Park, Y. J. Bae, and S. Y. Jeo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 621–631, 2002.
- [30] P. L. Hewitt, G. L. Flett, S. B. Sherry, M. Habke, M. Parkin, R. W. Lam, B. McMurtry, E. Ediger, P. Fairlie and M. B. Stein,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4, No. 6, pp. 1303–1325,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4.6.1303>
- [31] J. H. Ha,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4 pp. 1211–1230,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211>
- [32] A. Schlein, and B. G. Guernsey,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77.
- [33]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No. 2 pp. 195–204, 1980.
- [34] G. E. H. Nam, and H. C. Se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 for achievement, self-initiated character, self-esteem, personal relation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of life, and positive emotions of adul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Nursing*, Vol. 15, pp. 55–77, 2015.
- [35]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 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3, pp. 585–600, 1986.
- [36]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3.
- [37] M. Argyle, *The psychology of happiness*(2nd ed.). New York: Routledge, 2001.
- [38] Y. O. Choi,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blem ability, job stress and happiness by teache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 University, 2011.
- [39] H. A. Seo, and S. J. Eom, “The influence of the creative persona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grit :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8, No. 2, pp. 173–197, 2019.
DOI: <https://doi.org/10.30761/ecoece.2019.18.2.173>
- [40] J. H. Park,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7, pp. 61–6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7.61>
- [41] H. Y. Hwang, and Y. E. Chun, “The effect of activities of character strengths on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9, pp. 593–604,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9.051>
- [42]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and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Nurse Education Today*, Vol. 31, No. 8, pp. 855–860, 201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0.12.023>
- [43] J. Y. Kim, and H. S. Park,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1, pp. 545–559, 2015.
- [44] P. Hills, and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 33, No. 7, pp. 1073–1082,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45] J. I.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2, pp. 574–58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574>
- [46] Y. S. Kang, Y. J. Choi, D. L. Park, and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0.16.2.143>
- [47] J. A. Seo, “The effect of golf participant’s perfectionism inclin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 focus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 esteem”,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24, No. 4, pp. 128–137, 2022.
- [48] S. M. Jeong, and D. G. Lee, “Difference in passive/active procrastination, happiness, and depression by 14the clusters of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pp. 857–875, 2013.